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6

ESG공시 의무화와 청렴윤리경영

2024 June

Vol. 138

ESG 공시 의무화와 청렴 거버넌스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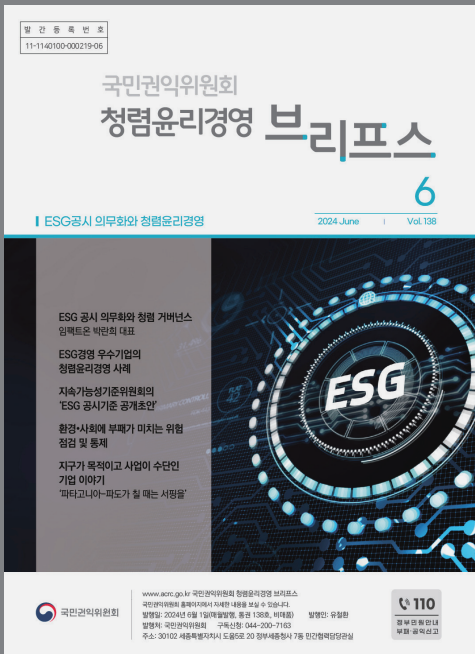
ESG경영 우수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사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환경·사회에 부패가 미치는 위험
점검 및 통제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이 수단인
기업 이야기
‘파타고니아-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COVER STORY

2024년 4월 30일 국내 ESG 지속가능 공시초안이 발표됐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재무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ESG경영과 공시가 중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제정기구,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의장은 공시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그린워싱이나 정보 왜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어 이에 공시기준이 윤리적 기준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ESG공시와 윤리경영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01	전문가 코칭	04
	ESG 공시 의무화와 청렴 거버넌스 임팩트온 박란희 대표	
02	사례돌보기	07
	ESG경영 우수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사례	
03	보고서리뷰	13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2024.4.30)	
04	행동하는 윤리경영	17
	환경·사회에 부패가 미치는 위험 점검 및 통제	
05	문화 속 기업윤리	22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이 수단인 기업 이야기 ‘파타고니아-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06	뉴스클립	2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07	웹툰 윤리네컷	26
	ESG경영 실천	
08	행사소식	27
09	퀴즈	28



전문가 코칭

ESG공시 의무화와 청렴 거버넌스

박란희 대표
임팩트온



이번 호에서는 ESG 전문 미디어 임팩트온(IMPACT ON)의 대표이자 편집장이신 박란희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 ESG공시 의무화와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국내에서 ESG공시 초안이 발표되고 세계적으로 ESG공시가 의무화, 법제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동향이 반부패/윤리경영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협력사 혹은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갑질을 함으로써 공정위로부터 1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A기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100억원 과징금 부과내역, 윤리경영 개선과제 및 활동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법적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SG공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3~4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중요성(materiality)’ 항목에 ‘반부패·윤리경영’과 같은 항목이 없다면,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성 혹은 중대성이라고 불리는 항목은 ESG(지속가능성) 항목 중에서 우리 기업의 재무적인 기회 및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A기업의 경우 100억원이라는 재무적 손실을 입힐 정도로 윤리경영 이슈가

중요함에도, 회사가 이를 중대하게 여기지 않아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ESG공시의 의무화, 법제화는 기업의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이제 재무회계원장만이 아니라 ESG회계원장도 함께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EU의 ESG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된 일부 수출대기업부터 ESG공시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전사적 자원 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ESG공시 항목 중 반부패·윤리경영 관련 내용을 보면, 주로 ‘반부패·윤리경영 추진체계 및 정책, 사내교육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확인된 부패 사례 및 조치’ 등의 항목입니다. 향후 공시정보가 모두 비교가능질 경우, 이는 경쟁기업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기 위한 기업간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경영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 요소로 여기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태계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Q2> 청렴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ESG 중 거버넌스 차원에서 기업에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 ESG공시 의무화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 ‘공급망실사법(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까지 지난 5월 최종 통과되면서, 공급망의 협력업체에까지 인권과 환경에 책임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확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안의 최종목적은 이러한 청렴윤리경영이 기업에서 시스템적으로 내재화시키라는 것이며,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즉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지, 윤리경영 시스템이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녹아 있는지, 임직원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에 포함되거나 내부 인센티브가 있는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목표와 개선사항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되는지 등이 그 사례입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윤리강령 선언을 포함한 기업 내부 정책은 선진국과 비견될 만큼 잘 갖춰져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잘 작동하기 위한 체계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기업의 고충처리 메커니즘에서 제기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이를 감추지 않으며, 개선사항을 솔직하게 밝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충처리 건수 제로(0)를 더 훌륭하게 보는 식입니다. 해외에서는 고충처리 건수가 제로라는 건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ESG공시 대응을 ESG 활동 홍보나 마케팅으로 착각할 경우, ESG공시는 ‘ESG 워싱(Washing, 가짜)’으로 여겨지고 평판 및 법적 책임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수많은 기업 리스크의 공통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나오며, SNS를 통해 견제를 수 없이 확산되며, 한번 터진 리스크는 되돌리거나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후대응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때문에 기업의 이사진 및 경영진은 청렴윤리경영에 준하는 기업의 거버넌스 자체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 프레임워크를 ‘사후대응적’에서 ‘사전예방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SG경영 우수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사례

사례돌보기

최근 EU, 미국 등이 ESG 공시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ESG공시 초안이(지속가능성 공시 공개초안)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ESG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표준을 참고하여 이러한 움직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에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ESG의 전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는다. 기업의 환경 또는 사회적 약속이 위반될 때 부적절한 반부패 관행,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 모순된 로비 활동, 비효율적인 이사회 감독 또는 부적절한 리더십 등 기업의 비효율적인 거버넌스가 그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는 ESG 의제의 핵심 요소다.

따라서 이번 사례 돌보기에서는 우수한 ESG경영을 시행한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이 거버넌스 분야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청렴윤리경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국내 전자제품 및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한국ESG평가원이 실시한 '2023년 4분기 상장 대기업 ESG평가'에서 81.5점을 받아 최우수 등급인 'S'로 평가되었으며, 거버넌스(G)는 S등급에 해당했다.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이사회 독립성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준법 윤리경영을 강화해오고 있다.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준법지원인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법무실 산하의 컴플라이언스팀을 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준법통제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사내 법 위반 제보 기능 외에도 외부 이해관계자가 법 위반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 시스템도 추가 개선했다. 제보 시스템의 실효성을 위해 제보용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도 공개했다. 반부패, 준법경영 분야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삼성전자는 국내외 부패 방지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경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글로벌 반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을 개정하고, 모든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반부패 교육도 강화했다. 매년 진행하는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필수 교육에 부패 방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반부패 정책과 프로세스 개선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또 부서별 준법관리 책임자 교육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원과 최고경영자 양성 인력 대상으로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재 사례와 국내 청탁금지법 등을 포함하는 부패 방지 교육을 확대했다.

〈삼성전자 - 글로벌 반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 주요 내용〉

I 서문
· 본 정책의 목적은 임직원들에게 반부패 관련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
II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CPA), 한국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규 및 정책 준수 · 사업상 부정한 이익의 대가로 금품 제공, 공무원에게 위법·권한 남용하는 부탁 금지
III 선물, 접대 및 기타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접대 제공은 관련 법규·소속 조직의 규정에 부합하고, 정당한 사업목적이 있으며, 그 비용·빈도가 합리적이어야 함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로 기타 혜택 제공 금지 · 거래업체로부터 대가성 있는 선물·접대 수령 금지
IV 기부, 후원 및 협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 자산으로 불법적인 정치 기부 금지 · 자선 기부, 후원 및 협찬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내부 프로세스 준수 필요
V 제3자 대리인
· 반부패 법규 회피 수단으로 제3자 대리인을 활용하지 않으며, 제3자 대리인이 본 정책 및 법규 위반 시 계약 파기 등 조치 실시
VI 장부 및 기록 작성
· 모든 비용은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에 기록하고, 허위 정보 등 기재 금지
II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 개선 실시 · 실행 주체인 전사 Compliance 팀장에게 부패방지책임자로서 책임·권한 부여

출처: 삼성전자,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년에는 지주회사인 삼성이 준법 경영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컴플라이언스 팀은 준법 경영을 위한 IT 시스템 CPMS(Compliance Program Management System)를 운영 중이며, 부패방지, 공정거래 등을 담당 부서와 협업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준법 시스템인 CPMS를 통해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에 게시된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업무과정 중 의문이 생기거나 판단하기 어렵거나 위법여부 판단에 대해 CPMS를 통해 담당자에게 1:1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해 임원 평가의 준법 항목 중요도를 높이고, 조직 평가에 준법 항목을 신설했다. 포상 제도도 도입했다. 준법문화 조성에 기여한 임직원이나 단체에는 CEO가 직접 포상(SEC Annual Awards)도 진행한다.

2. 심스 리미티드(Sims Limited)

심스 리미티드(Sims Limited, 이하 ‘심스’)는 전 세계 30개국을 통해 수집한 폐기물에서 철과 알루미늄, 구리같은 금속 원자재를 추출해 가공 판매하는 호주의 글로벌 금속 재활용 기업이다. 캐나다의 투자 리서치·미디어 그룹 코퍼레이트나이트츠(Corporate Knights)는 매년 전 세계 약 6000개 이상 기업을 평가해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데 심스는 여기서 2024년에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2023년에는 뉴스위크(Newsweek)가 매출 기준 미국 내 상위 2,000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ESG관행과 관련된 환경 관리, 인력 및 리더십 다양성, 지역사회 영향, 공개 및 투명성, 경제적 성과 등 주요 기업 책임 지표를 평가하는 ‘미국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기업(list of America’s Most Responsible Businesses)’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렴윤리경영의 핵심가치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 핵심가치에는 청렴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 등 청렴성과 윤리경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핵심가치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를 행동강령에도 제시된다. 다음은 홈페이지의 핵심가치 내용을 번역한 내용이다.

〈심스의 핵심가치〉

 <p>안전</p> <p>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모든 부상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믿으며, 무사고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p>청렴성</p> <p>우리는 모든 비즈니스를 정직하게 수행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적 비즈니스 행동 기준을 준수합니다.</p>	 <p>존중</p> <p>우리는 서로와 고객, 방문자 및 커뮤니티 구성원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합니다.</p>
 <p>투명성</p> <p>우리는 모든 업무에서 적절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p>	 <p>우수성</p> <p>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추구하고 회사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모범사례의 공유를 장려합니다.</p>	 <p>사회적 책임</p> <p>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활용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출처: Sims Limited 홈페이지 | <https://www.simsltd.com/sustainability/ethics-and-conduct/>

한편, 심스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sustainable growth strategy)을 책임감 있는 운영, 폐기물 재활용, 변화를 위한 협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8 -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13 - 기후 행동, 12 -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심스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심스가 식별한 중요 ESG 및 지속가능성 주제 중 윤리경영과 관련된 항목을 발췌한 내용이다.

〈심스 지속가능성 전략〉



출처:Sims Limited, 2023 sustainability highlights(2023)

〈심스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 발췌〉

목표	구분	내용
 <p>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p>	기업 거버넌스	이사회/경영 품질 및 청렴성(건전성) 이사회 구조 소유권+주주권리 보상 감사+재무 보고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직장 내 심리적 안전 채용 + 채용 관행에 DEI 통합하기 지역주민 참여
	직원 건강+안전	건강+안전 위험 최소화
	환경 규정 준수	규정 준수 폐기물 관리 대기, 토지, 수질에 대한 책임 있는 배출 유해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 매립지로 보내지는 사업장 폐기물
	ESG 투명성,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검증된 ESG 보고 심스의 ESG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 제품 포지셔닝의 스토리텔링
	윤리적인 사업 관행	뇌물수수 및 부패 반경쟁적 관행
	인권+현대판 노예제도	인권, 노동권 및 노사관계 책임있는 소싱 공정+공평한 보상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인적 자본의 가치 평가	직원 채용 유지 개발 및 교육

출처: Sims Limited BLOG]

참고

- 삼성전자, 202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삼성전자, 202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삼성전자, 202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Sims Limited, 2023 sustainability highlights(2023)
- Sims Limited, 2023 Corporate Governance Statement(2023)
- Sims Limited BLOG, "Sims Limited Joins the UN Global Compact"(2021.12.15)
- Sims Limited BLOG, "Sims Limited Conducts ESG Materiality Assessment, Ensuring Solid Path Toward Sustainability"(2022.5.5)
- WEF, "Why sustainable governance and corporate integrity are crucial for ESG"(2022.6.29)
<https://www.weforum.org/agenda/2022/07/the-g-in-esg-3-ways-to-not-miss-it/>
- 한스경제, "[창간9주년-200대기업 ESG평가] 삼성전자, 2년째 S등급·종합 1위 쾌거...SKC·롯데칠성·KT&G '톱4'"(2024.3.4)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112>
- 인사이트 코리아, "삼성전자의 정도경영 의지... '거버넌스' S등급 이어간다"(2023.12.26)
<https://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04>
- SBS Biz, "삼성전자 '반부패·뇌물방지' 정책 개정... 재생에너지 확대 모색"(2021.7.6)| <https://biz.sbs.co.kr/article/20000022010>
- 뉴시스, "삼성 '준법경영' 강조했지만 '부정 제보' 늘었다...왜?"(2023.8.8)|
https://www.news1.com/view/?id=NISX20230808_0002406450&cID=13001&pID=13000
- 아이뉴스24, "'오너 리스크' 속 준법 경영 강화한 삼성전자...준법위 활동 '눈길'"(2021.6.28)
<https://www.inews24.com/view/1380339>
- 파이낸스투데이, "[김도윤 ESG 칼럼] ESG 경영, 기업별 사례 및 필수 전략"(2024.2.21)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41>
- ESG경제, "글로벌 지속가능성 100대 기업 선정... 삼성SDI·KB금융 순위에"(2024.1.1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2>
- 임팩트온, "2024년 지속가능경영 톱 100대 기업, 폐기물 재활용 1위...삼성SDI·KB금융 작년보다 순위 올라"(2024.1.19)|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82>
- 한국경제, "삼성·현대차·LG, 유럽 ESG 공시 제정기구 만난다...애로사항 등 논의"(2024.4.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164285i>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 보고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2024.4.30)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국내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자본시장에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용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자 만들어졌다. 초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정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정되었다.

- (1) 국제 정합성: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시작점으로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하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의 이중 부담 최소화
- (2) 정보유용성: 투자자에게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제공
- (3) 기업의 수용가능성: 국내 산업의 상황, 특성과 기업의 공시 역량,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 완화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K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내용 중에서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거버넌스 및 윤리경영과 관련해 유념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개초안은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관련공시사항’,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제1호와 제2호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 기준으로 제2호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그리고, 향후 제정될 그 밖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와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 제101호는 추가 고시 기준으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충족하고, 정부 한국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되었다. 지속가능 관련 재무 정보 외에도 세부 공시 요구사항별 공시 여부를 기업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제1호가 요구하는 개념 기반이나 공시 범위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구분	번호	명칭	비고
의무공시 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추가고시(선택) 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선택)사항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2024.4.30)

제1호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주요내용

기준서는 공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는 본문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기준서의 목적은 단기, 중기 또는 장기(단기: 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후로 정의되나 다른 정의도 사용 가능)에 걸쳐 기업 전망(기업의 현금 흐름, 자금조달 및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준서는 관련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의 내용,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기준서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아닌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고자 한다면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개념적 기반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목적적합한 정보 공시. 이때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한 서술을 통해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 ¹⁾ 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은 자신의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
중요한 정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한다. 정보 누락이나 잘못되거나 불분명한 기재가 이를 근거로 내리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초안에서 공시가 요구되어도, 해당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통합), 유사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세분화) 주의해야 한다.

연계된 정보	<p>투자자가 정보 간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정보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의 연계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
핵심 요소	<p>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는 TCFD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공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요소는 기업이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버넌스: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 전략: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 위험관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 •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여기에는 기업이 설정한 모든 목표, 또는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모든 목표에 대한 진척도가 포함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요약(2024.4.30)

2) 일반 요구사항

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비교정보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
준수 문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한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기재
기후 외 사안 공시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기로 한 경우,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부록E)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시
판단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린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정보를 공시
측정불확실성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친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 공시
오류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에 보고된 오류와 관련된 비교정보를 재작성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요약(2024.4.30)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시사점

공시초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타 주제에 비해 정량화가 용이하여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주제 보다 기후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공시사항인 ‘제1호’의 일반 요구사항에 따르면 보고할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또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공시 요구사항이 없다면 이를 식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의 원천으로 SASB, GRI, ESRS 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표준 지표에는 반부패·윤리 경영도 포함된다. 일반 요구사항은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할 때 ‘부록E’에 따를 것을 제시하는데 부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만약 기업이 청렴윤리경영(반부패·윤리경영)과 관련된 사건들이 단기적으로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판 위험은 중·장기적인 기간범위에 걸쳐 기업의 더 큰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의 중장기적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이러한 주제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윤리 경영도 그러한 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향후 사회 및 거버넌스 분야의 공시기준이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거버넌스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2024.4.30)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요약(2024.4.30)
-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2024.4.30)



행동하는
윤리경영

환경·사회에 부패가 미치는 위험 점검 및 통제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가이드 ESG A to Z(2022.7)'에 따르면 위험 관리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위험 또는 기회라고 정의된다. 최근 글로벌 리스크와 투자자의 관심, 정보공개 및 규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위험 관리는 매우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한편, 영국 국제투명성기구와(Transparency International UK)와 스웨덴 정부의 투자펀드인 스웨드펀드(Swedfund)의 협력을 통해 작성된 'TI, Investing with Integrity II: How Corruption Undermines Environmental And Social Outcomes(2024)'보고서는 투자자들이 윤리적이거나 ESG투자를 하려고 할 때 E 또는 S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부패를 파악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침과 툴킷을 제공한다. 부패에 연루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투자가 방해받거나 특히 포트폴리오 회사가 부패에 따른 스캔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 평판이 손상되어 수익이 감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들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나 기업의 담당자 역시 위험 식별 등위험관리에 이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부패사항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정리하여 공시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ESG경영 실사 체크리스트(실사 중점 분야)

'Investing With Integrity II'보고서에 따르면 부패 위험과 환경 및 사회(E&S, Environmental and Social) 문제는 종종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비즈니스 청렴성(BI, Business Integrity) 및 E&S와 관련된 업무 흐름 전반에 걸친 실사를 조율하여 위험 간 잠재적 연관성을 식별 및 분석하여 그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이 환경 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기업 역시 강력한 청렴 문화를 통해서 부패와 E&S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실사 주요 영역을 파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부패와 E&S위험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사 영역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회사의 정책과 절차, 자원 및 광범위한 청렴문화를 구현하는 방법 등을 평가해야 한다. '라이선스 및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부패로 인한 광범위한 E&S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nvesting with Integrity II'보고서는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질문들을 제시한다. 이를 체크리스트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사 우선영역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관리자와 직원들은 E&S위험이 가장 높거나 BI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을 어디로 판단하고 있는가? - 이러한 평가는 서로 다른 위험 영역 간 잠재적 연관성을 고려하는가? - 기업은 현재 이러한 위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관리하는가? - 투자자의 '위험 우선순위 지정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위험 영역 간 잠재적 연관성을 식별 및 분석하고 위험 우선순위 조정 시 이러한 연관성을 반영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가?
회사의 정책 및 절차 이행여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 및 E&S에 대한 정책이 회사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보이는가? - 회사에 BI 또는 E&S관련 문제의 기록이 있는가? - 회사의 과거 대응을 보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 회사에서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는가? 이러한 시도는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기업 자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전체 위험영역에서 우선순위의 모든 위험 관리를 위한 역량, 노하우 및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기업의 다양한 위험영역에 책임(ownership)을 지니는 사람은 누구이며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
기업 문화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투자 심사 또는 기존 E&S평가 문서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는 BI 또는 E&S문제가 지적됐는가? - 하위직급 직원과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회사 문화는 무엇인가? - 직원이 회사의 가치, 정책과 그것들이 일상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 회사 리더십이 명확한 핵심가치를 제시하는가? 가치가 BI표준, E&S표준 또는 둘 다와 관련 있는가? - 회사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회사 가치에 위배되는가?
라이선스 및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E&S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라이선스는 무엇인가? - 회사의 확장에 따라 라이선스 요구 사항의 수, 유형 및 지역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새로운 E&S 표준 및 관련 라이선스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가? - 회사 대신 허가 및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제3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출처: TI, Investing With Integrity II: How Corruption Undermines Environmental And Social Outcome (2024)

‘Investing With Integrity II’보고서는 부패위험 파악에 대한 영역별 예시를 제공한다. 오염 분야를 살펴보면 투자자는 부패 위험과 오염 관련 환경, 안전 위험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뇌물 수수는 기업이 환경 및 안전보건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E&S문제를 초래하거나 기업 평판, 근로자와 지역사회, 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오염 관련 부패 파악 체크리스트

<p>주요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이전에 환경오염 유발 혐의로 기소된 적 있는가? - 회사가 이전에 환경 조사관(environmental inspectors)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적 있는가? - 해당 시설이 국가 환경표준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설계 및 시공되었음을 문서화할 수 있는가? - 회사는 어떻게 폐기물 관리 및 기타 오염 위험분야 담당 제3자를 선정하고 활동을 모니터링하는가?
<p>특정 상황에 따라 권장되는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오염 관련 법규에서 허용되는 경우, 회사는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관련 환경기관 및 규제기관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어떤 유형의 부패가 존재하는가? - 부패에 가장 취약한 환경 라이선스 및 허가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 회사가 이전에 환경기관, 규제 당국으로부터 뇌물을 요청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심된 적 있는가? - 회사는 규제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프로세스를 사용하는가? - 투자로 인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완화하는 환경 보상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 있는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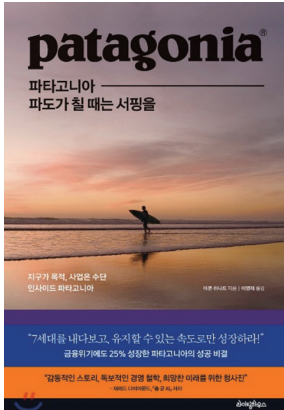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 가이드 ESG A to Z(2022.7)
- TI, Investing with Integrity II: How Corruption Undermines Environmental and Social Outcome (2024)



문화 속
기업윤리

지구가 목적이고 수단인 기업 이야기

도서 ‘파타고니아…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미지 출처: 예스24

파타고니아는 1973년 미국에서 설립된 아웃도어 제품브랜드로 환경 친화적인 경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이 책은 파타고니아의 창업자인 이본 쉬나드가 그의 경영 철학과 파타고니아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올해 85세인 이본 쉬나드는 2023년 타임(Time)지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아이콘 부문)에 선정이 되고, 2007년 포춘(Fortune)지는 파타고니아를 ‘가장 멋진 회사(The coolest company on the planet)’라고 칭할 만큼 찬사를 받고 있다.

암벽등반을 즐겼던 쉬나드는 등반에 필요한 장비 사업을 시작하였고, 1970년대 미국 최대 등반 장비 공급업체가 될 정도로 사업을 성공을 거두지만 이와는 반대로 암벽을 흥하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목도한다. 이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 또한 늘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던 파타고니아는 요세미티 계곡의 도시화를 막는 종합계획을 지지하는 전국적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카탈로그를 제작하는데 재생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재생용지의 품질을 높이는 투자까지 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이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고객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경영이라고 하면 생산, 폐기 등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파타고니아는 환경경영이 하나의 수단이 아닌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기업경영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본 쉬나드는 파타고니아와 2천여명의 직원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세상에 유익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기업을 만든다는 것을 파타고니아를 통해 입증하였다’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업가의 철학과 의지가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본 쉬나드는 직원들에게 환경윤리와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소통하고자 한다. 이에 임직원들은 철학은 숙지함으로써 하나의 ‘지침’이 되어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재무, 인사, 경영에 철학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기후위기는 자원 이용의 지속 불가능성,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까지 더해지면 우리 경제와 환경 모델은 파국을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에 도달한다. 이에 대한 한 사람의 책임있는 문제인식이 어떻게 기업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뉴스클리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민권익위, 베트남과 지속적인 반부패 협력 약속

2024년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체결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연장 및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방안 등 양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의 오랜 협력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국인 베트남은 국민권익위와 2010년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하며 반부패 협력 정책교류를 지속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 및 주요 적발 사례, 청렴 교육 제도 운영 현황 등 한국 정부의 노력과 부패 척결 성과를 소개했다. 그리고, 중앙내무위는 부패 척결을 위한 그간의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 반부패 동향을 소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대표단은 베트남 중앙내무위 외에도 검찰원, 지방내무위 등 베트남 주요 반부패 기관도 방문하여 양국의 청렴 수준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23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71074

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강화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23.1월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조사는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규정 미숙지와 공공기관별 자체 채용규정의 흠결로 인해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채용규정에서 상위법령과 지침을 위배하거나 미 규정된 사항을 분석하여 규정에 맞는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컨설팅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8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70205

국내외 동향

EU 반부패 지침 최종안 협상 시작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올해 후반에 부패 척결에 관한 새로운 지침의 최종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5월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형법에 따른 부패 척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이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반부패 법안을 조화롭게 하고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에 규정된 범죄를 EU 법률 내에서 범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안의 후속으로 2024년 2월 유럽 의회가 자체 입장을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는 위원회가 작년에 처음 제시한 것에서 더 나아가 부패 피해자 권리를 확립하는 요소와 법정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한 몇 가지 요소를 도입했다. 새 법안의 핵심은 뇌물수수이지만 이 외에 다른 형태의 부패들도 포함되었다. 새로 제안된 입법 체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패 위험이 발생하거나 심화되기 전에 이를 해결하고 청렴 문화 촉진을 위해 부패가 시민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로 부패 예방 강화,
- 부패 범죄의 정의에 뇌물 수수 범죄뿐만 아니라 횡령, 영향력 거래, 직무 남용, 부패 범죄와 관련된 사법 방해 및 불법 이득 등을 포함하여 의미를 확장,
- 모든 EU 회원국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 처벌 및 제재 도입,
- 부패 기소를 위한 공소시효 연장,
- 법 집행기관과 검사가 부패 척결에 적절한 수사 도구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24년 4월 16일

<https://www.transparency.org/en/news/will-the-eu-raise-anti-corruption-standards>

건강한 지배구조 기업이 더 '밸류업' 할 수 있다

한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일본 모델을 참고하여 도입한 정책)에 대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청(NBIM)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은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PBR(주당순자산가치, Price Book-value Ratio) 등의 재무 지표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장까지 화두로 삼아야 가능하다. 때문에 밸류업 공시에는 비재무공시가 주효하게 담겨야 한다. NBIM은 이사회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 등을 점검한 내용을 '밸류업 공시'를 통해 성실히 알린다면, 이를 투자 판단 근거로 활용하려는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개선 과제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운영 체계를 꼽았다. 현행 비재무정보가 담긴 영문 지속가능보고서 수준으로선 기업별로 정보 공개 편차도 매우 심할뿐더러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NBIM은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투자하는 대표 국부펀드로 꼽히는데 최근 주시하는 ESG 현안으로 'AI(인공지능) 이용'과 '반부패' 등을 꼽았다. NBIM은 2008년부터 아동 권리·기후변화·인권·세금 투명성·해양 지속가능성 등 ESG 의제를 추려 '기대 보고서'(Expectations of Companies)를 작성해 투자 원칙을 따르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반부패를 6번째 ESG 분야로 선정하여, '부패'를 시장왜곡·기업운영 효율성 저하·법적 및 재무적 리스크·주주가치 훼손의 주범으로 주목한다. 부패 리스크 관리 책임은 경영진과 이사회에 있으므로 기업 리더십 차원에서 활발한 반부패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게 NBIM의 생각이다.

■ 헤럴드 경제 2024년 5월 29일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529050351>

10년새 상승한 기업호감도, 국민 눈높이 맞춘 ESG경영 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인식인 기업호감지수를 산출한 결과, 국내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ESG경영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에 집중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호감지수란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에 가까우면 호감도가 높은 것이고, 0에 가까우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기준점인 50을 넘으면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진 사람이 비호감을 가진 사람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기업호감지수는 53.7점으로 나타나 10년 전인 2014년 기업호감지수 44.7점에 비해 10점 가까이 늘어났다. 기업에 대한 심리적 호감지수는 2023년에 비해 전반적 호감도가 1.5점(52.6→5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에 대한 인식이 5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24.8%)고 응답한 국민이 나빠졌다(13.1%)고 응답한 국민보다 10%p 이상 많았다. 특히 지난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윤리경영 실현(36.5→40.9)은 4.4%p 상승하는 등 기업들의 사회적 노력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기업에 호감이 가는 이유로는 국가경제에 기여(43.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일자리 창출(26.5%), 기업문화 개선에 대한 노력(10.3%),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수행(9.7%) 등의 순이었다.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은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42.7%)을 가장 많이 거론했으며, 이어 기업문화 개선 노력 부족(23.3%), 사회공헌 미흡(10.7%), 고용 부진(9.7%) 등이었다.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에 대한 호감도는 57.5점을 기록해 국내 기업 호감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에 비해 부족한 점으로는 준법 및 윤리경영 미흡(3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 한스경제 2024년 5월 24일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971>

중견기업, ESG 공시 부실...경영 개선 갈 길 멀다

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 등 환경 관련 공시는 더욱 부실했다. 대한상의 공급망ESG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공급망 내 협력사 1,278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 실사를 수행하고, 지난 4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요 기업과 관련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중견기업은 ESG 공시뿐 아니라 ESG 경영 개선도 시급하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종합 평점은 고위험 구간을 탈피했으나,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은 고위험 수준이다. 특히 지배구조 부문은 윤리경영(윤리경영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제외한 정보 공시, 관리 시스템(ESG 리스크 식별 및 관리), 감사(독립적 감사 조직, 보고 체계 보유) 모두 고위험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 협력사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으로 ESG 경영 전담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 ESG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ESG 경영 리스크가 높다고 대한상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장사(4.84점), 외감법인(3.96점), 비외감법인(2.85점)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과 공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장사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 등 상장 심사 종합 평가에 대비해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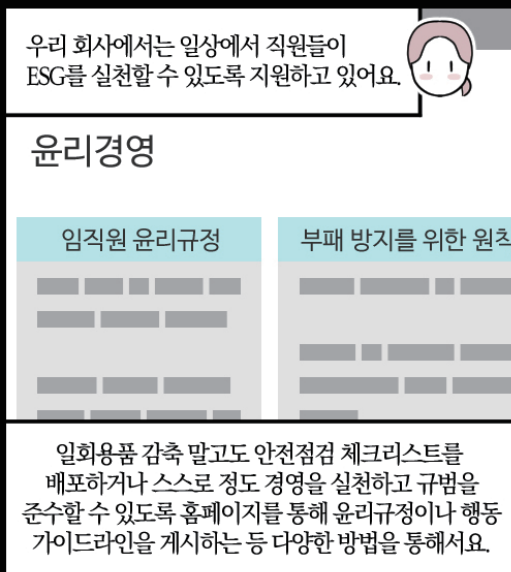
■ 한국경제 2024년 5월 5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04856i>



웹툰

ESG경영 실천

윤리네컷





행사소식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선한 법률 동향: HR 및 ESG 관련 최근 동향

변화하는 ESG동향에 회사는 이에 따른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을 숙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교분사무소가 고객을 초청하여 ESG 분야에서는 공시, 공급망 실사, 그린워싱 리스크를 중심으로 최근 동향과 시사점 등을 살펴보는 세미나

주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교 분사무소

일정 2024년 6월 13일(목)

장소 판교테크원타워 3층, 코사이어티 타운홀 A 세미나실

참고 <https://www.bkl.co.kr/law/seminar/seminarView.do?pageIndex=1&seminaNo=1231&lang=ko>

World ESG and Climate Summit

글로벌 리더,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성 및 ESG 관행과 관련된 시급한 과제를 논의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서밋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기후 변화 완화, 재생 에너지, 순환 경제, 사회적 영향, 다양성 및 포용성,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 이해 관계자 참여 및 ESG 보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주최 Leadvent Group

일정 2024년 6월 18일(화) ~ 6월 19일(수)

장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파크 플라자 암스테르담 공항(Park Plaza Amsterdam Airport)

참고 <https://www.leadventgrp.com/events/world-esg-and-climate-summit/details>



Q. 기업의 ESG 경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 ①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구매 시 수소차 구매
- ②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ESG 소위원회 구성
- ③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컨셉 광고제작
- ④ 안전경영 지침의 협력사 제공

퀴즈 응모 2024년 6월 24일(월)까지

- (1) '응모하기' 페이지(<https://quiz.assist.ac.kr>)에서 응답하시거나
-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김○승님, 문○영님, 박○필님, 정○경님, 최○솔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 |
|----------|--------------------------|
| ① 상담신청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 ② 상담관지정 |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 ③ 사실관계조사 |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 ④ 결과확인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



